

2023. 8. 28.(월) 석간용

이 보도 자료는 2023년 8월 28일 오전 06: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## 보도자료

담당부서: 경제정책실 금융투자과

인베스트서울(SBA)

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: 4쪽

금융투자과장

김국진

2133-8547

투자유치팀장

김윤정

2133-4760

투자전략팀장

문경일

6361-4121

관련 누리집

[www.seoulfintechweek.com](http://www.seoulfintechweek.com)

### 서울시, 벤처투자의 자금회수전략으로 국제인수합병 제시...투자유치 경쟁력 키운다

- 8.30(수)한국벤처캐피탈 협회와 공동으로 국경넘나드는 인수합병 세미나...매도희망 3개사 참여
- 시장지배력 확보, 비용절감, 원천기술 확보 등 최신 국제인수합병 동향 확인, 전략 분석
- 시, 중소벤처기업에 자금회수 대안 제시, 매도 희망기업-글로벌 펀드 운용사와 매수 희망기업 연결

- 작년 국내 기업의 인수합병(M&A) 거래량은 1,905건으로 글로벌 거래(54,452건)와 비교하면 3.5%에 불과하다. 중소,벤처기업이 인수합병 방식으로 자금회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반해 국내 벤처 캐피탈 자금 회수(Exit)에서는 11% 수준으로 나타났다.

\* 출처 : 삼일 PWC 2023 글로벌 M&A 트렌드

- 해외의 경우 벤처투자의 회수전략으로 인수합병(M&A)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에 반해, 국내는 여전히 기업공개(IPO)가 벤처기업의 가장 대표적인 출구전략으로 꼽힌다.
- 서울시는 한정된 인력과 자본으로 인해 정보가 제한적인 중소, 벤처기업에게 '국제인수합병'이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'국경을

넘나드는 국제인수합병 거래를 주제로 한 크로스보더 M&A 세미나'를 8월 30일(수)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. 서울시 투자유치 전담기구인 인베스트서울(Invest Seoul)과 한국벤처캐피탈협회(KVCA)와 공동으로 개최한다.

○ 참석자는 온라인을 통해 당초 예상보다 많은 200여명이 신청하여 국제인수합병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.

□ 국제인수합병은 일반적인 인수합병보다 거래가 성사되기 어렵지만  
 ▲ 목표 해외 시장에 대한 빠른 시장지배력 확보 ▲ 해외 자금 조달 및 비용 절감 ▲ 원천 기술 확보 ▲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 등 다양한 장점으로 최근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.

□ 현장에는 매도를 희망하는 기업 3개사가 참여해 국내외 매수 의향이 있는 기업과 대면할 수 있는 시간도 운영한다. 국제인수합병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시장동향과 절차 등 다양한 정보도 제공한다.

시간	내용	발표자
14:00~14:20 (20분)	행사 소개 - KVCA / 인베스트서울 소개	- 한국벤처캐피탈협회 - 인베스트서울
14:20~15:30 (70분)	크로스보더 M&A 특강 - 크로스보더 M&A 시장 동향 - 크로스보더 M&A 절차 및 전략	- 블룸버그 - 삼일회계법인
15:30~15:55 (25분)	Break Time	
15:55~16:40 (45분)	매도 희망기업 소개 - 3개사, 각 15분	

○ 먼저 서울시의 투자 인센티브와 서울시 투자유치 전담기구인 인베스트서울의 지원사업을 소개하고, 중소기업 인수합병(M&A) 거래정보망을 운영하는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사업에 대해 안내한다.

- 다음으로 인수합병/기업공개(M&A/IPO) 등 다양한 기업 데이터베이스(DB)를 보유한 블룸버그 코리아에서 최신 국제인수합병 현황 및 최신 경향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인사이트를 공유한다. 이어, 삼일회계법인의 국제인수합병 전문가가 국제 인수합병 진행 절차 및 국내 인수합병과의 차이점과 주의사항, 실제 사례를 공유하면서 성공적인 크로스보더 딜 체결을 위한 방안을 설명한다.
  - 이어서 크로스보더 인수합병(M&A)를 희망하는 국내 기업 3개사의 발표와 인수합병(M&A)관계자들의 질의응답이 진행된다.
- 서울시 투자유치 전담기구인 인베스트서울(Invest Seoul)은 국내 스타트업과 외투기업, 예비 외투기업 및 투자유치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기업의 투자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세미나를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.
- '22년 10월 12월에도 국제인수합병을 주제로 기업과 대사관, 금융권 관계자를 대상으로 크로스보더 인수합병(M&A) 세미나를 진행했다.
  - '23년 상반기에도 유망 산업별(로봇, 핀테크, 바이오, SaaS) 투자 트렌드를 전달하고 해외 VC를 초청하여 총 15개 기업에게 IR 기회를 제공하는 등 서울 기업의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.
- 박경환 서울시 신산업정책관은 “중소·벤처기업에 자금 회수를 위한 출구전략으로 기업공개 이외에도 대안이 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고, 시장의 트렌드 정보를 제공하는 기회를 강화할 것”이라며, “기업의 투자유치 역량을 높여 국내 벤처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연계하겠다.”라고 말했다.

붙임 : 크로스보더 인수합병(M&A) 세미나 포스터

**붙임** 크로스보더 M&A 세미나 홍보 포스터 (1부)

